

주요개념 : 양육효능감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오진아*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영유아기는 인생의 출발점이며 인격의 기초가 세워지고 인지, 정서, 신체적인 성장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의 시기이며 지지개념과 사회적인 적응력에 있어서도 현저한 발육의 시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발달단계상 중요하며 이후 아동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준다(Spence, Najman, Bor O'Callaghan, & Williams, 2002). 그러나 영유아는 혼자서 성장 발달할 수 없으므로 양육자의 보살핌이 전적으로 필요하며 영유아를 돌보는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양육자와 영유아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끈다(Dorsey et al., 1999).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의 개념에서 시작된 양육효능감은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아동을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대한 양육자 자신의 신념을 의미한다(최형성, 2001). 양육자로서 효능하다는 지각은 양육자로서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양육행동 및 아동발달에도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최형성, 2005). 학자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 예를 들면 가난이나, 까다로운 아동의 기질, 사회적 지원, 우울과 같은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Coleman & Karraker, 1997). 또한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 문제행동과도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Teti & Gelfand, 1991). 양육효능감이 낮은 양육자에게 양육을 받은 아동은 부적절한 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 발달도 방해되었다(Coleman & Karraker, 1998). 이와 같이 양육자-아동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양육자의 양육효능감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 한국사회의 경우 조모는 어머니와 함께 아동 양육 및 보호를 맡는 역할을 담당하여 영유아의 사회화 과정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여 영유아의 생활과 놀이를 주관하면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하였다(유안진, 1994). 한편 핵가족이 일반화 된 현대사회는 기혼 여성 특히 취업여성의 경우 출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과중한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한

*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인제대학교 노인건강전략개발연구소
교신저자 오진아 : ohjina@inje.ac.kr

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 육아제도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이 미비하고 경제적 부담감, 양육자에 대한 신뢰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녀의 조모에게 양육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동아일보, 2001). 이는 가족의 부양 및 양육 문제를 사회보다는 가정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수행해 온 한국 사회의 전통을 고려할 때, 영유아 양육에 있어서 조모와 같은 가능한 가족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오진아, 2006). 그러나 양육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에 접어드는 연령의 조모들은 각종 건강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아통합성의 문제 등과 직면하게 되고(오진아, 2006), 건강문제가 있거나 크고 작은 생활사건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여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은 영향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선행연구가 있으나(김선희, 2005; 김미숙, 문혁준, 2005; 김현미, 도현심, 2005), 영유아 양육을 전담하는 조모들의 양육효능감은 최근에야 관심이 모아지는 주제로 그 연구결과는 매우 부족하다(옥경희, 정계숙, 천희영, 황혜정, 최성학, 2006). 국외 연구로는 조모의 자기효능감을 다룬 King과 Elder(1998)이 자기효능감이 높은 조모들이 그렇지 않은 조모들보다 아동의 삶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금전적 지원을 더 제공하며, 아동의 미래계획에 대해서도 개입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밝혔다. 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조모의 자기효능감을 통해 양육효능감을 짐작할 수 있는 연구결과이다.

한편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바 자명한 사실이다.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 간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Kotichick et al., 1997;

Dumka et al., 1996; Levy-Sciff et al., 1998; Scheel & Rieckmann, 1998). Kotichick 등(1997)에 따르면 질병, 경제적 곤란, 대인갈등과 같은 스트레스가 양육자의 낮은 양육효능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고, Scheel과 Reickman(1988)은 스트레스가 양육효능감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 중 하나라고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조모의 일반적 특성뿐 아니라 조모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각되는 건강상태, 건강문제 및 생활사건 경험정도를 주요한 변수로 다루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를 위한 지원이나 부모교육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한 아동의 발달과 조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양육효능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상태, 건강문제, 생활사건경험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양육효능감에 대하여 설명력을 갖는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

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 내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생후 3개월부터 만3세까지의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모는 외조모와 친조모를 구분하지 않았다. 대상자는 본 연구의 의의를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도록 하였고, 답하기 불편한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응답을 그만둘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연구자의 연락처를 설문지 표지에 기록하여 조모 자신과 영유아의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3. 연구 도구

1) 건강상태 측정도구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지각에 대한 평가로서 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서 개발한 Health Self-rating scale을 수정보완하여 현재의 자신의 건강상태, 1년 전과 비교한 건강상태,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3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최저 3점에서 최고 15점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평가한 건강상태가 좋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 .88$ 이었다.

2) 건강문제 측정도구

지난 1년동안 겪었던 구체적인 건강문제를 5점 척도 9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건강문제와 만성질환, 노년기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노화 등과 관련된 건강문제를 다루었으며 김정은 (2002)의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 7문항에 2문항을

추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문제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 .77$ 이었다.

3) 생활사건 경험 측정도구

McCubbin(1979)의 생활사건목록을 근간으로 장영자(2003)이 한국가족생활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한 것을 사용한 20문항의 5점 Likert 척도 중에서 중년기 초기에 해당되는 3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17문항을 선택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영유아를 돌보는 여성노인임을 감안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간호학 교수 2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 .90$ 이었다.

4) 양육효능감 측정도구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Johnston & Mash, 1989, 김선희 재인용 2005)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양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양육효능감의 측정은 Floyd, Gilliom and Costigan (1998)의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를 안지영(2001)이 번역하고 수정한 도구를 할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문구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hronbach's $\alpha = .78$ 이었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편의추출하였으며, 총 15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되지 않은 것과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121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다중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 당 최소한 20개 이상의 표본을 갖추어야 하므로 본 연구수행에서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백분율 및 평균으로, 연구변수의 서술적 통계는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연구도구의 신뢰성 검정은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로 분석하였다.
- 3) 변수들과 양육효능감의 평균비교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 4)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변수가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설명력)를 검증하기 위해서 stepwise multiple regression(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7.4(±5.8)세 이었다. 결혼 상태는 대부분 현재 배우자와 있는 경우로서 117명(77.3%)이며, 나머지 24명(22.7%)은 별거, 사별, 이혼, 기타의 이유로 배우자가 없었다. 영유아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66명(46.8%)으로 거의 절반이었고 혼자 살면서 영유아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양육효능감 (N=121)

항목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é
현재 배우자유무	유	103 (85.1)	39.26	±5.09	.02	.89	
	무	18 (14.9)	39.44	±4.98			
동거가족	자녀가족과	57 (47.1)	38.92	±5.23	.30	.82	
	남편과	57 (47.1)	39.54	±5.14			
	혼자	5 (4.1)	40.80	±2.58			
	기타	2 (1.7)	38.50	±2.12			
종교	있음	94 (77.7)	39.41	±5.02	.25	.61	
	없음	27 (22.3)	38.85	±5.24			
교육정도	초졸	28 (23.1)	39.96	±5.49	.53	.66	
	중졸	37 (30.6)	39.51	±5.40			
	고졸	45 (37.2)	39.04	±4.68			
	대졸이상	11 (9.1)	37.81	±4.46			
조모의 이전 직업	없음	89 (73.6)	39.33	±5.14	1.53	.20	
	회사원	16 (13.2)	37.75	±4.87			
	자영업	13 (10.7)	39.69	±4.13			
	부업(시간제)	3 (2.5)	44.33	±5.68			
가족의 월수입	<100	5 (4.1)	38.40	±1.51	1.44	.22	
	100-199	33 (27.3)	39.24	±3.50			
	200-299	38 (31.4)	38.31	±5.96			
	300-399	30 (24.8)	39.40	±4.71			
	400≤	15 (12.4)	41.93	±6.34			

대상자의 평균연령 57.4(±5.8)세

를 돌보는 조모는 8명(5.7%)이었다. 109명의 대상자(77.3%)가 종교가 있었으며 32명(22.7%)은 종교가 없었다. 51명(36.2%)은 고졸, 34명(24.1%)이 초졸, 대졸도 11명(7.8%)이었다. 영유아를 돌보기 이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는 102명(72.3%)이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회사원, 자영업, 시간제 부업의 순이었다. 가족의 월평균수입은 200-299만원이 가장 많았고(32.6%), 100만원 미만은 4.3%, 400만원 이상은 11.3%이었다.

조모의 영유아 돌보기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돌보는 영유아의 수는 대부분 1명이었으나(118명, 83.7%), 23명(16.3%)은 2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었다. 영유아의 평균연령은 2.4(±1.2)세이었다. 영유아의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거나 매우 좋은 경우가 124명(87.9%)이었고, 매우 나쁜 경우는 6명(4.3%)이었다. 영유아를 돌봄으로써 수고비를 수혜하는 정도는 대상자의 51명(36.2%)이 31-50만원의 수고비를 받고 있었고, 수고비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가 18명(12.8%),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고비를 받는 경우는 5명(3.5%)이

었다.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모의 양육효능감

연구대상자의 평균 양육효능감은 평균 39.39(±5.09)로서 중간점수보다 높은 정도를 나타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표 1>에서 어떠한 특성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돌보기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표 2>에서 보면 양육동기(F=3.08, p= .04), 영유아의 건강상태(F=3.36, p= .02)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양육동기는 조모가 원하여 영유아를 돌보게 된 경우가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았고(평균 40.67±5.11), 어쩔 수 없어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가 양육효능감이 가장 낮았다(평균 38.17±5.16). 영유아의 건강상태는 건강이 아주 좋을 때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았고(평균 41.16±6.38), 건강이 나쁜 편일 때 양육효능감이 가장 낮았다(평균 36.66±2.68).

<표 2> 영유아 돌보기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과 양육효능감 (N=121)

항목	구분	빈도 (%)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é
돌보는 영유아의 수	1명	101 (83.5)	39.61	±4.84	2.54	.11	
	2명	20 (16.5)	37.65	±5.87			
양육 동기	어쩔 수 없어서	59 (48.8)	38.17a	±5.16	3.08	.04*	a<c<b
	내가 원해서	36 (29.8)	40.67b	±5.11			
	간곡한 부탁	26 (21.5)	39.92c	±4.27			
영유아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6 (5.0)	38.00a	±2.68	3.36	.02*	b<a<c<d
	나쁜 편이다	9 (7.4)	36.66b	±4.30			
	좋은 편이다	74 (61.2)	38.77c	±4.34			
	매우 좋다	32 (26.4)	41.16d	±6.38			
수고비 수혜여부 (월평균)	전혀 안받는다	17 (14.0)	40.23	±5.75	.41	.83	
	10만원이하	10 (8.3)	39.50	±9.52			
	11-30만원	28 (23.1)	38.78	±4.68			
	31-50만원	42 (34.7)	39.26	±3.90			
	51-100만원	29 (15.7)	38.57	±4.40			
	101만원 이상	5 (4.1)	41.40	±5.12			

영유아의 평균연령 2.4(±1.2)세

a,b,c는 Scheffé 검정에서 차이를 보인 집단을 의미함

3. 양육효능감에 관련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에 관련이 있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표 3>에 상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양육효능감은 건강상태($r = .23$, $p < .05$)에 대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건강문제($r = -.19$, $p < .05$)와 생활사건경험($r = -.35$, $p < .01$)에 대해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관련 요인과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변수	건강상태	건강문제	생활사건경험
건강문제	-.55**		
생활사건경험	-.27**	.39**	
양육효능감	.23*	-.19*	-.35**

* $p < .05$, ** $p < .01$

한편 본 연구의 중다회귀분석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가 회귀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잔차항들이 독립적이고 정규분포함을 확인하였는데,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수가 모두 .7 이하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stepwise) 분석방법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표 4>은 조모의 양육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단계적인 분석방법을 이용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회귀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6.67$, $p < .001$), 조모의 건강상태($\beta = .15$, $t = 1.50$), 건강문제($\beta = .02$, $t = .19$), 생활사건경험($\beta = -.32$, $t = -3.44$)이다. 이 중 생활사건경험 변수만이

영유아를 돌보는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유의한 요인($p < .0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효능감에 대한 예측력은 14.6%였다.

<표 4> 양육효능감 영향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R ²	β	t or F
양육효능감		.146		6.67***
	건강상태		.15	1.50
	건강문제		.02	.19
	생활사건경험		-.32	-3.44**

** $p < .01$, *** $p < .001$

IV. 논 의

아동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접하게 되면서 사회를 배우며 점차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아동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사회와 구성원이 요구하는 태도와 사고방식을 형성하게 된다(김현미, 도현심, 2004). 양육효능감은 양육자의 영유아를 돌보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신숙재, 1997), 자라나는 아동의 양육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양육환경으로 작용할 양육효능감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은 평균 39.39(± 5.09)로서 중간점수보다 높은 정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학령기까지 전 연령의 아동을 양육하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을 다룬 오진아(2007)의 연구에서 양육효능감 평균 2.63($\pm .37$)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높은 양육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연령(평균 57.4세)이 전 연령의 아동을 양육하는 조모의 연령(평균 59.3세)보다 적고, 돌보는 아동의 수도 본 연구에서는 83.5%가 1명이었던 것에 비해 오진아

(2007)의 연구에서는 2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가 33.64%나 차지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 주관적 양육스트레스원의 내용을 조사한 오진아(2006)의 연구결과에서 아동의 신체적 돌봄 이외에도 교육, 훈육, 아동의 생활습관교정 등의 부가적인 내용이 훨씬 많았던 것과 비교해볼 때 돌보는 아동이 영유아일 경우에는 조모가 영유아를 좀 더 효능감있게 돌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특성 중 조모와 관련된 인구학적 변수는 양육효능감의 정도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5.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육효능감이 저하되지는 않았다. 동거하는 가족이 영유아 가족과 함께이거나 노인가족이거나 혼자 사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는 영유아 양육효능감과 차이가 없었으며 종교, 교육정도, 조모의 이전 직업 유무도 영유아를 돌보는 양육효능감에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가족 월수입의 분포는 다양하였는데 가족 월수입의 차이도 양육효능감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가족 월수입 정도에 따라 아동을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이 차이가 난다는 오진아(2007)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삶의 질에 대해서는 양육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역할의 제한성, 사회적 고립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Kelly, 1993), 가족 월수입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보지 않고 경제적 여건이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오진아, 2007), 경제적 여건으로 생각되는 가족 월수입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어머니 세대의 내리사랑에 대

한 의미로 판단하였으며 경제적인 여유로움이나 경제적인 부족함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과거부터 그랬듯이 조모는 가족 내에서 '조용한 구원자', '이차적 방어선', '안전망'으로 표현될 정도로 자녀들에게 양육정보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영유아의 부모로부터 수고비를 수혜받는 정도 역시 양육효능감의 정도와는 차이가 없었던 본 연구결과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

반면 영유아 돌보기와 관련되어 조모의 양육동기는 양육효능감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모가 원해서 영유아를 돌보기 시작한 경우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았고, 영유아 부모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의 순서로 양육효능감의 정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조모는 가족이 어려운 일이나 예기치 못한 변화에 직면했을 때 안전장치 혹은 충격완화 장치의 역할을 감당해왔기 때문에(신혜섭, 1999), 며느리나 딸의 경제활동 및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영유아를 아동의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조모가 양육자의 역할을 기꺼이 담당하는 경향인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발적인 동기부여는 양육효능감을 비롯한 자기효능감 향상에 중요한 변수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건강상태는 조모의 양육효능감 정도에 유의한 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유아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을 경우 양육효능감은 평균 41.16(± 6.38)점으로 매우 높았다. 그 다음 순으로 건강상태가 좋은 편일 경우가 양육효능감이 높았다. 그러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보다는 나쁜 편이라고 생각될 때가 양육효능감이 더 낮았는데,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아동이 질환을 가진 경우로 의료진과의 협력

체계가 구성되어 있거나 더욱 적극적으로 영유아 돌보기를 하는 경우로 생각이 되며, 특별한 질환이나 진단명이 없이 그저 영유아의 건강상태가 나쁜 편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 막연함과 불확실성이 영유아를 돌보는데 있어 양육효능감을 가장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의 조모는 가족내의 출산과 양육과정을 지켜보면서 자라나는 영유아로부터 생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지만 최근 시대의 변화로 어린 영유아의 일차 양육자로서 어머니역할을 담당하는 조모에게는 양육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과 정서적 고통을 초래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신혜섭, 1999; 옥경희, 2005). 그들이 자발적으로 영유아를 돌보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도래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조모의 건강상태와 건강문제, 생활사건경험을 스트레스 변수로 두고 조사하였다. 아동을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은 선행 연구(오진아, 2007)에서도 건강상태, 건강문제, 생활사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그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가 지각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영유아를 돌볼 수 있다는 양육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각된 건강상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건강문제가 적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통스러운 생활사건의 경험은 양육효능감을 저하시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가지 변수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특히 생활사건경험은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변수로 밝혀졌다.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연구한 오진아(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생활사건경험은 여성노인의 건강문제 다음으로 삶의 질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친 변수로 밝혀졌는데, 생활사건경험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내용으로서의

생활사건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중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효능감이 높을 때 부정적 양육행동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옥경희 외, 2006)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생활사건 경험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조모를 둘러싸고 다양한 생활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신뢰할만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제와 이러한 지원체제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지원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스트레스의 감소는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원은 보육시설의 확충이나 재정적 지원 외에도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와 고충을 듣고 그에 대한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망의 확립을 의미할 수 있다.

Ⅶ.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들의 양육효능감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영유아를 돌보는 외조모 혹은 친조모 중 참여를 허락한 조모로서 편의 표출법으로 추출하였으며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질문지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한 문항이라도 불충분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121명이 최종 연구대상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한 서술통계 및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양육효능감은 중간준수보다 높은 정도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정도의 차이는 영유아를 돌보게 된 동기가 자발적으로 원한 경우일 때 양육효능감이 높고, 또한 영유아의 건강상태가 좋을수

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 분석에 따라 밝혀진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생활사건경험으로서 생활사건경험이 적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들에게 충분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조모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마련은 아동건강뿐 아니라 건강한 가족 형성의 중심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의 표집방법이 임의표출로 이루어졌고 거주지역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때 영유아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런 후에 아동을 돌보는 조모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개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영유아와 그 가족, 조모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마련을 위한 다학제간 컨소시엄 개최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개발의 움직임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김미숙, 문혁준 (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3(8), 25-35.

김선희 (2005). 유아의 탄력성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영향. 유아교육연구, 25(4), 191-209.

김정은 (2002). 손자녀를 양육하는 빈곤지역 조부모의 심리 정서적 안녕과 영향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현미, 도현심 (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동아일보 (2001). <http://www.donga.com/fbin/searchview?n=20010521>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혜섭 (1999). 손자녀 양육 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4, 69-80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진아 (2006). 취업모 가정에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아동간호학회지, 12(3), 368-376

오진아 (2007). 손자녀를 돌보는 조모의 삶의 질 구조모형. 아동간호학회지, 13(2), 201-211

옥경희 (2005).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양육.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03-114

옥경희, 정계숙, 천희영, 황혜정, 최성학 (2006). 한국과 연변조선족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25-36.

유안진 (1994). 아동양육(육아론 개정판). 서울: 문음사

장영자 (2003). 중년여성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적응방법 관계연구. 인하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형성 (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형성 (2005).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아동학회지, 26(1), 317-32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 방안' 토론회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and Company.
- Coleman, P. K., & Karraker, K. H. (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Floyd, F.,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s: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75-197.
- Kelly, S. J. (1993). Caregiver stress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4, 331-337
- Kotchick, B. A., Forehand, R., Brody, G., Armistead, L., Simon, P., & Clark, L. (1997). The impact of maternal HIV infection on parenting in inner city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 447-461.
- Levy-Sc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 (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 1417-1427.
- McCubbin, H. I. (1979). Integrating coping behavior in family stress theor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May, 237.
- Scheel, M. J., & Rieckman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5-27.
- Spence, S. H., Najman, J. M., Bor, W., O'Callaghan, M. J., & Williams, G. M. (2002). Maternal anxiety and depression poverty and marital relationship factors during early childhood as predictors of anxie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Psychiatry, 43(4), 457-467.
- Teti, D.,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if infants i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5), 918-929.

ABSTRACT

Key Words : Parenting self-efficacy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elf-efficacy in Grandmothers Raising Infant and Toddler

Oh, Jin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degrees of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self-efficacy in grandmother raising infant and toddler. **Method:** A convenience sample of 121 grandmothers whose grandchild was between 3 to 36 months old was used. The variables were health status, health problems and life event.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with Scheffé 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using SPSS WIN 12.0.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parenting self-efficacy was

39.39(SD=5.09), somewhat higher than moderate in level. Factor that was significant in influencing parenting self-efficacy was life event. This factors accounted for 14.6% of explained variance. **Conclusions:** It was found that the life event was influenced to parenting self-efficacy in grandmothers raising infant and toddler. From this study it is proposed that there is a need to develop programs and policies which support them. Ultimately a good care environment for children will be good for the young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RIGH, Inje University